

제10차 아시아 건축사대회(2)

After Visiting the 10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 10차 아카시아 총회가 인도의 수도 뉴델리 소재의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02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되었다. 총회전 12월 3일, 4일 이틀간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총회 기간 중에는 학생 잼보리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동시에 진행되었다.

아카시아 이사회에는 이정근, 오근석 위원이 참가를 하였고, 총회에는 필자 1인, 학생 잼보리에는 최기현, 강혁진 두 사람이 참가 하였다.

아카시아 회원국은 총 2001년 네팔이 새로 가입하여 총 17개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금번 총회에서는 준비가 급하게 진행된 관계로 참여를 하지 못한 국가도 있으나 많은 현지 건축가들과 함께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

개막식 행사는 비그얀 비완(Vigyan Bhawan) 회의장에서 인도 정부 도시계획, 반곤 퇴치부 장관을 비롯하여 새로 아카시아 회장 임기를 맡은 홍콩의 배리 윌(Barry Will), 그리고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발비르 베르마(Balbir Verma) 인도 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금번 총회의 주제는 "인간 중심의 건축"(People Centric Architecture)으로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 인간적 건축에 대한 재고와 우리가 사는 건조환경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유지에 대한 아시아 건축사들의 생각이 담긴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다. 12월 5일, 6일, 7일 3일간 치루어진 행사는 다음과 같다.

12월 5일

오전 : 개회식

개회식은 비그얀 비완(Vigyan Bhawan) 회의장에서 열렸다. 아나탄 쿠마르(Anathan Kumar) 도시개발 반곤퇴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시작되어 개막을 상징하는 등잔불 세리머니, 화환증정 등의 의식을 거행하였다.

발비르 베르마(Balbir Verma) 인도 건축사 협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신임 회장인 홍콩의 배리 윌(Barry Will)등 관계자의 인사가 계속되었고 마지막으로 장관의 축사가 있었다.



그림 1. 크리스탈 볼룸 회의장 전경

오후 세션

이후 모든 세션은 그랜드 인터 콘티넨탈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되었다.

첫번째 연사로 일본의 가즈오 이와무라 (Kazuo Iwamura)가 "인간중심의 그리고 환경 친화적 주거 계획" (People centric and environmentally symbiotic housing in Japan ; all through the sustainable design process)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그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과정을 디자인 전, 디자인 중, 디자인 후의 3단계로 나누어 과정을 설명하고 그에 의해 도출된 결과로서의 건축을 예시하였다

이어서 인도 건축가 라즈 르왈(Raz Rewal)은 알함 브라궁의 이미지를 자신의 건축디자인에 적용한 과정을 발표하였다.

간단한 커피 브레이크후에 호텔 지하층 리젠시 룸에서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작에 대한 전시회 개막 행사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방철린 소장과 조남호 소장의 작품이 아카시아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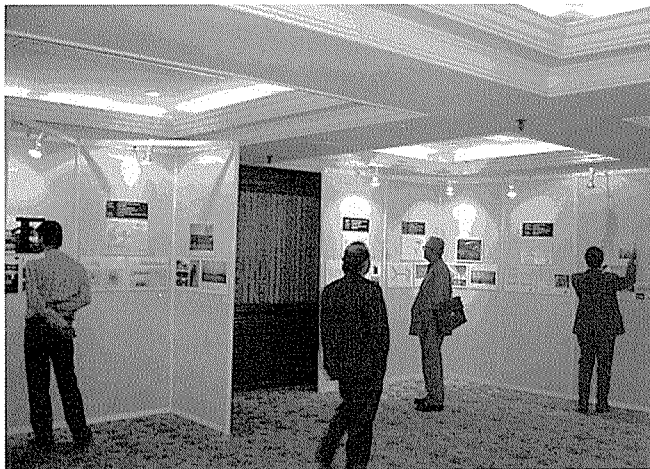


그림2. 아카시아 수상작 전시회

12월 6일

오전 세션의 전반부에는 인도 건축사 비제이 리즈부드(Vijay Rizbud)와 반살 박사(S.P. Bansal)가 델리 남서쪽에 위치한 드와르카(Dwarka) 신도시 계획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드와르카시는 인구 약 백만명을 위한 신도시로서 현재 2단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형적인 위성도시개발 계획이다. 총 5648ha로 1688ha는 이미 건설되었고 현재는 2098ha가 진행 중에 있다. 주거는 80ha에 인구 3-3.5만명의 단위로 나뉘어져 모든 커뮤니티 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계획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홍콩대학의 파트릭 라오 교수(Patrick Lau)가 "환경건축" (Eco Architecture)의 제목으로 3개의 학교 건축 설계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중국의 천. 지. 인.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중국 고건축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한 계획이었다.

약 30분간의 티 브레이크후 인도 건축사 비말 파텔 (Bimal Patel)이 "아메다바드(Amedabad) 사바르마티 강변개발 계획" (Sabarmati River Front Development)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현재는 강변이 빈민거주지역으로 형성되어 심각한 공해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1997년 개발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으로는 인도 건축사 쿠라나(J.J. Khurana)가 "인간적인 도시, 문명화된 도시" (Humanizing Cities, Civilizing Society)의 제목으로 이스파한(Isfahan)의 정원도시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점심 후 모든 회원들은 연꽃사원과 인도정부 주택성을 방문하였다.



그림 3. 인도 정부 주택성

12월 7일

마지막 날의 세션은 필자의 귀국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못하였다.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테리 신도시의 경험(Experiences of Their New Township) : 아스혹 드완(Ashok Dhawan), 킴티 랄 샤만(Kimti Lal Shaman), 사티쉬 칸나(Satish Khanna) 인도 건축사

- 비디아 나가의 창조(Creation of Vidyanagar) : 제라르 다 쿤하(Gerard Da Cunha) 인도 건축사

티 브레이크

인간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eople) : 쉬리시 데스판데 교수(Prof. Shirish Deshpande)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간중심의 건축(People Centric Architecture for Social Relevance and Sustainability) : 릴웰론 반 아이크(Llewellyn Van Wyk), 남아공화국

점심

인간을 위하여 사유화를 통한 주택공급과 여가(Providing Housing & Recreation for People Through Privatization) : 피 카시(P. Kasi) 말레이시아

응답(Responses) : 호앙 다오 킨 교수(Prof. Hoang Dao Kinh), 베트남

세션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저녁 7시부터는 아쇼크 차 나카푸리 (Ashok, Chanakyapuri) 호텔에서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식이 진행되었고, 각국 대표들의 장기자랑이 곁들여진 저녁 만찬을 끝으로 제 10차 아카시아 총회가 막을 내렸다.

아카시아 회원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와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로 이루어졌다.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와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가까워 질 수밖에 없고, 우리 건축사들이 진출하여 일할 기회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에는 낮은 설계 가격 등으로 진출의 조건이 좋지만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변국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후의 아시아 설계 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홍일 / 본 협회 국제위원)

시작하며..

건축잼보리의 참가기회가 주어진 것은 대단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도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소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실무건축을 시작한지 10개월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1월 3일

며칠 간 계속되던 일을 밤샘작업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서 정신 없이 짐을 꾸려 공항으로 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더 준비할 시간을 가졌어야 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잼보리 대상으로 결정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이다.

6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간단한 탑승 절차를 마친 후 경유지인 방콕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비행시간은 약 4시간 30분정도였으며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기분은 아마 그때쯤이었다.

하지만 잼보리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라서 약간의 걱정도 있었다.

11월 4일

방콕에서 1박을 했던 ASIA AIRPORT HOTEL에서 나온 시간은 오전9시(방콕시간)정도였다. 동행했던 최기현씨와 둘이서 방콕 시내에 나가보기로 한 것이다. AIR TRANSIT을 위한 하루정도의 시간에 호텔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GRAND PALACE에 가보기로 하고 물어 물어 버스에 오르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GRAND PALACE를 자세히 살필 여유가 없었지만 태국의 고궁과 근대 건축물, 그리고 오가며 길가로 보이는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11월 방콕의 날씨는 우리나라의 초여름 수준으로 매우 더운 날씨였으며 아마도 건물의 입면에 차양이 많은 것은 이러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짧은 반나절의 여행을 마치고 저녁 6시 반경에 인도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비행기 안에 진동하던 냄새는 한 두시간 지나면서 익숙해져버렸지만 여행 떠나기 전에 인도여행의 어려움 등을 들었던 기억에 약간의 긴장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인도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10시경이었다(인도시간). 교수님께서서는 아마 주최측에서 마중 나올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스산한 안개와 먼지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겼던 것 같다.

별도의 마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콘티넨털 호텔로 향하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개회식장에서 잼보리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학생 잼보리는 이미 4일 오후에 시작되었지만 늦게 도착한 이유로 하루 늦게 참여하게 된 것이다.

11월 5일

아카시아의 공식행사 개회식이 10시에 있었으며 개회식 이후에 잼보리 행사에 공식 등록을 마치고 최기현씨와 둘이서 잼보리 행사장으로 향했다. 잼보리 행사장은 SPA로 델리의 건축대학이었으며 숙소는 JNS 호텔로 유스호텔 개념의 숙박시설이었다. 호텔은 간이 침대가 6개 놓여진 허름한 곳이었다. 시설이야 우리나라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함께 지냈던 prem(건축대학 3학년 학생)이 친절하게 우리들을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델리의 겨울 날씨는 우리나라의 늦가을 날씨로 일교차가 심해 밤에는 추운 편이었다.

오후에는 건축대학에서 "The computer will make the pencil redundant in the 21st century"라는 주제로 Debate 시간을 가졌다. 다른 나라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들은 행사에 구체적인 준비를 못한 상태여서 발표는 못했지만 여러 학생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Debate 시간이 끝난 뒤 토론의 주제에 따라 간단한 컴피티션을 하였으며, 우리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했으며, 주제는 "Peace and Celebration"이었다. 저녁시간에는 건축대학의 음악동아리에서 준비한 공연과 연극동아리에서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밤11시가 되어서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11월 6일

잼보리 일정 3일째 날로 오전에는 시티투어를 하였으며 오후에는 5일과 비슷한 컴피티션과 학교동아리의 공연 그리고 각국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한 패션쇼가 있었다.

시티투어는 델리에 있는 고건축과 근/현대건축들을 답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LODI Gardens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는데, 로디 정원은 몇몇 왕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정원의 형성된 기간이 길어 역사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건축양식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정방형 기단에 8각형의 탑형 건축인 Octogonal tomb, 정방형 저층부에 원탑이 서있는 SHISH-GUMBAD, 양측에 저층부 주랑이 있고 중앙에 정방형 구조로 되어있는 BARA-GUMBAD 등이 로디 정원에 산재해 있었다. 로디정원에 인접한 INDIA HABITAT CENTER는 알렌 스타인의 건축으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였지만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외관상의 테라코타는 인상적이었다.

다음으로 HUMAYAN'S Tomb에 들리게 되었는데 타지마할의 원형이라는 말처럼 구조적 형태는 타지마할과 비슷한 형상으로 정방형 기단부 위에 팔각형 구조부가 외주부로 4개 그 내부에 4개 그로 인해 만들어진 중앙의 8각 로툰다와 4개의 사각형 공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정문에서부터 본당까지 진입하는 경로 또한 정방형 담벽을 하나하나 통과해 가는 진행으로 외부조경의 형태나 패턴이 서로 엄격하게 관계맺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힌두교 성전으로 현대식 구조의 건축물이었다. 연꽃모양으로 구성된 성전은 구조적으로 매우 특이하였다.

11월 7일

특이한 일정은 없었으며 각자 얻은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과 폐회식과 수상식 등이 이어졌다. 공식일정은 2시 30분 경에 끝났으며 우리는 8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델리 공항으로 향했다.

델리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 만들어진 계획도시로 역사가 600년 이상이 된다고 들었다. 사실 가로변의 나무들을 보면 그 도시의 역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나무가 왕복4차선 도로를 뒤덮을 정도로 자라있다. 그때문인지 도시가 숲과 섞여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숲 속 사이로 드문드문 고층빌딩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인도 학생의 말처럼 근대건축이 발생하기 이전에 인도 자생의 근대건축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도 인도라는 나라의 풍토와 동서 문명의 접점지역으로서 갖는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도시에서 발견되는 건축물들은 근대건축의 원형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황량하기까지한 먼지진 거리와 타오르는 태양 아래의 건축이란 정말이지 건축이 본질만이 남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다.

맺으며..

우선 아쉬운 점은 좀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이다. 귀국 후 인도건축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인도에 가고서도 보지 못할 정도로 빠빠한 일정이었지만 미리 준비했으면 좀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건축문화대상의 수상자로 참여하긴 했지만 대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실무건축을 하는 참가자는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두 사람 밖에 없었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기왕에 경비를 들여 여행을 간 것이므로 충분한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참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강혁진 / (주)원도시 건축) 圖